

과달루페의 성모님

과달루페 성모님은 1531년 멕시코 테페악 산에서 발견하신 성모님으로 과달루페 성모 성지는 교회가 공인한 첫 성모발현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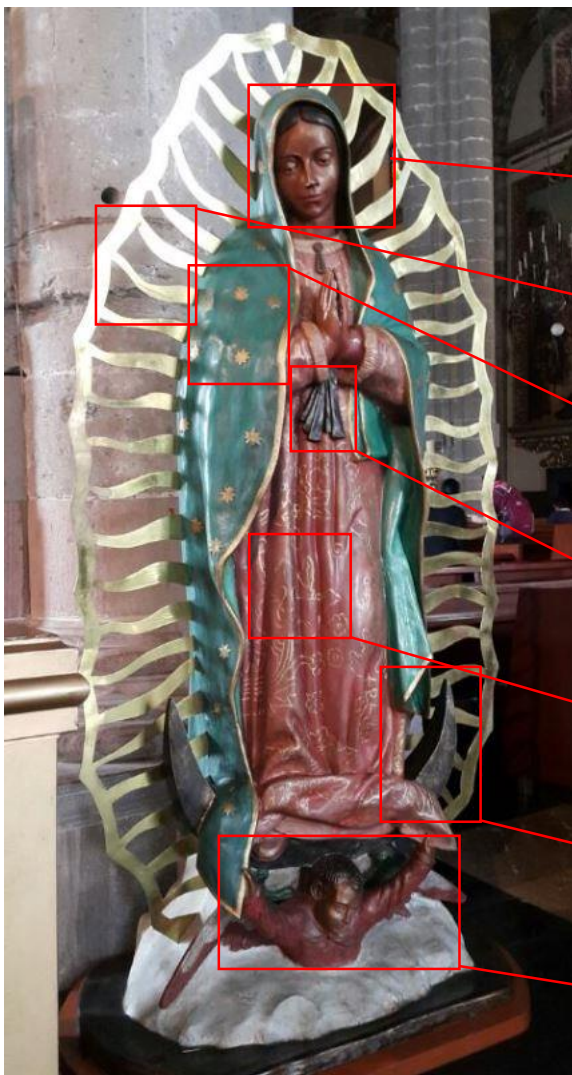
시대적 배경은 이 시기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지만 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요!!

시대적 배경

멕시코 일대에는 고유의 발전된 문명과 전통적으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 에스파냐 군대가 멕시코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교가 전래되었으나 원주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토착신을 숭배하고 있었다.

발견 당시 상황

1531년 12월9일 이른 아침, 후안 디에고는 미사에 참석하려고 테페악 언덕을 넘고 있었다. 그때 신비롭고 찬란한 빛을 내는 구름이 눈앞에 나타나더니 그 속에서 푸른 망토를 입은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성모님의 특징

거무스름한 황갈색의 피부 / 검은 머리카락
젊은 여성의 모습

햇빛과 같은 금빛 광선에 둘러싸여 있음

밝은 청록색의 겹옷 → 거룩함의 의미
46개의 팔각의 별 장식

검은색 리본 → 토착민 전통에 임신부들 의미

속옷은 금빛의 꽃무늬가 새겨진 검은 분홍색 드레스

검은 초승달을 밟고 서 있음 → 악마를 의미

어린 천사가 옷자락을 떠받침



발현과 메세지



성모님은 후안 디에고에게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믿으며 내 도움을 요청하는 지상의 모든 백성의 자비로운
 어머니이다. 나는 그들의 비탄의 소리를 듣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사랑과 연민, 구원 그리고 보호를 증거로 제시하는
 표시로 내가 발현한 이곳에 성당을 세우길 바라고 있다.
 그러니 너는 주교에게 가서 이곳에 **나를 위한 성당을
 세우는 것이 내 소망임을** 전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후안 디에고는 즉시 이 메시지를 스페인에서 온
 후안 데 수마라가 주교에게 전했으나 주교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고, 그 말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의 증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성모님을 만난
 후안 디에고는 그 말을 전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에게 테페약 언덕의 정상에서 **장미꽃**을 따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는 겨울이었고 테페약 언덕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었으나 그곳에서 장미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꽃들을 자신의 털마 (인디언의 겹옷)에 담아 성모님께로 갔다.

성모 마리아는 털마에 싸인 꽃송이들을 주교 앞에 나아갈 때 가지 풀어 보지 말라고 하시며 주교에게 이것들을 가져가 내 소망을 깨달도록 하고, 내가 요청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후안 디에고가 수마라가 주교에게 가서 “성모님이 보내신 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털마를 펼쳐 담은 장미꽃들을 보여주었을 때, 신기하게도 장미꽃들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면서 과달루페의 성모 형상이 후안 디에고의 털마에 새겨져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본 수마라가 주교는 그 경이로움에 놀라 그 즉시 성모 형상이 새겨진 털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성모 마리아의 요청을 믿지 않고 무시한 자신의 잘못에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바쳤다.

“나는 이곳에 성당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성당에서 나의 사랑, 나의 자비, 나의 도움과 보호를 모두에게 베풀겠다.”

성모님의 발현으로 인해 당시 고통 속에 신음하며 정신적으로 갈 곳을 잃은 수많은

인디언들은 물론 수많은 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구원을 얻었다.

